

혁신과 협력의 20년: 제네바에서 빛난 WIPO 한국신탁기금 기념식

- 20년간 신탁기금의 성과와 비전 공유 -
- 청소년·여성·중소기업 지원에 주력, 최근에는 개도국 인공지능(AI) 컨설팅 지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월 11일(목) 13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 지식재산기구*(이하 WIPO) 본부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유엔(UN) 산하 전문기구 중 하나로 지식재산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은 국가 간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특허청은 20년간 약 180억원을 공여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180여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윤성덕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를 비롯하여 190여 개국 대표단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년간 한국신탁기금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역량 강화>

‘발명왕 뽀로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은 6개의 일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UN) 공용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현재 몽골어 번역중이다. ‘발명왕 뽀로로’ 시리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여성 혁신가 지원>

여성과학자 및 혁신가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및 상업화 과정에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여성 리더십 코스’를 개설하였다. 2023년 4월 제네바에서 유네스코(UNESCO)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포함 16개국 2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었고, 오는 9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

2022년 출시된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IP Panorama 2.0’*은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구성원들이 지재산 획득전략, 활용, 보호, 비즈니스, 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지식재산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이전 버전인 ‘IP Panorama 1.0’은 2007년 출시 후, 24개국 언어로 보급, 총 175개국 약 3만명 교육

<개도국 인공지능(AI) 컨설팅>

최근에는 개도국 특허청이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인공지능(AI) 전문가가 필리핀 특허청을 방문하여 심사관 대상 인공지능(AI) 심사 검색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파일럿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였다.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올해 하반기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ASEAN 국가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신탁기금을 통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니셔티브(청소년·여성·중소기업 지원)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지식재산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영감을 일으키고, 전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붙임1: WIPO 한국신탁기금 행사 사진

붙임2: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박현수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이윤희 (042-481-5568)



(사진설명)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11일 13:00(현지시각) WIPO(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개최된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환영사를 했다.

사진 1 : 김완기 특허청장이 '한국신탁기금 20주년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2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1번째)이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왼쪽에서 2번째),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왼쪽에서 3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개요

- (목적) WIPO 내 韓영향력 확대 및 지식재산 분야 외교력 증진
- (내용) WIPO 한국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지원 사업 제공

□ 추진경과

- 특허청 - WIPO 기본협력협정(9개 조항) 체결('01. 11)
- 특허청 - WIPO 신탁기금 설치를 위한 기관간 약정(11개 조항) 체결('04. 6.)
- 1차년도('04)~20차년도('23) 사업완료, 21차년도('24) 사업 추진 중
 - * 예산 : ('15) 10억원 → ('16) 12억원 → ('17) 12억원 → ('18) 9.83억원 → ('19) 9.09억원 → ('20) 7.26억원 → ('21) 7.26억원 → ('22) 8.76억원 → ('23) 8.76억원 → ('24) 9.56억원

□ 주요 성과

- (IP 개발역량 강화) ①공무원 대상 IP 개발정책 석사(MIPD) 과정 개발·운영, ②고위 공무원 대상 UNIDO 산업개발과 지식재산 과정 운영
- (IP 활용역량 강화) ①국제 IP전문가 인증과정(AICC) 운영 ②중소기업 등을 위한 교육모듈 IP 파노라마 2.0 개발, ③UNESCO 여성과정 운영, ④IP-R&D 기반 창업·혁신 과정 운영
- (IP 인식제고) ①블록체인 백서 및 영업비밀 백서 발간, ②발명왕 뽀로로 등 어린이 발명 콘텐츠 보급

□ 국가별 신탁기금* 규모

구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특허청	문체부		
예산	77억원	9억원	10억원	16억원	3억원

* 2023년 기준 금액(출처 : WIPO Program of Work and Budget 2024/25)